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

—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임순록*
roga8109@hanmail.net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 한·일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 |
| 2.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 | 5. 맺으며 |
| 3. 불교와 종교관광 | |

主題語: 순례(A pilgrimage), 종교관광(Religious Tourism), 불교(Buddhism), 癒し(治癒 : Healing), 템플스테이 (Temple Stay)

1. 시작하며

1.1 연구의 목적

산업화과정에서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정신의 황폐화, 도덕성 상실, 인간의 소외감, 환경파괴를 경험하였던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내면의 가치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존엄성,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가문화형태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21세기의 특징은 여가생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자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문명이 이룩해낸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와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 문화체험은 현대인의 삶의 욕구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인의 관심은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만족을 통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신적·문화적 만족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에 활력을 주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1)

* (社)東北亞都農觀光研究院 研究員

1) 김기홍(2009), 「템플스테이를 모형으로 하는 중단 수련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대진대학교 대학원 대진중학과 석사학위논문, pp.2-3

인간생활은 하루하루의 순환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조로운 반복만이 아닌 활동과 휴식, 긴장과 이완 등 서로 대응하는 변화로서 성립한다. 인간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 존재키 위한 본질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변화욕구와 미지의 것에 대한 지식 욕구를 갖게 한다. 관광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욕구와 욕망은 호기심, 변화, 탈피감, 창조성, 쾌감, 휴식, 즐거움, 권위, 소속감, 망각, 자아발견, 자아형성, 자아통제, 자아유지, 안정, 사회적 지위, 성공감, 성취감 등 수없이 많이 있다.

이에 관광이라고 하면 사찰관광이 기초가 되는 일본과 한국에서 최근 한일 종교관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논문 및 문헌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범위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종교관광이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1.2 종교관광의 선행연구

한국에서 「종교관광」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기이다. 그 이전에 성지순례나 사찰관광 등의 종교관련어와 관광이라는 단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논문은 있어 왔으나 「종교관광」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논문은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조성탁(1991년)의 「종교관광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논문이 처음이다.

분류	저자명	논문명	년도	비고
학위논문 (188건)	趙誠樂	宗教觀光의 理論과 實際에 關한 研究	1991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도경록	宗教觀光 參與者의 滿足 : 佛敎史利 訪問者의 滿足에 미치는 期待·成果 · 不一致의 影響을 中心으로	2000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국내 학술지 (84건)	정병웅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u>종교관광</u> 활성화에 관한 연구	1997	觀光開發論叢, Vol.6 No.1
	김태영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2009	한국관광정책, Vol.- No.36
	박의서	한국 <u>종교관광</u> 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2011	관광연구저널, Vol.25 No.5

	조승아 김태영	종교관광이 관광객의 타 종교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 경남지역 주요 사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1	觀光研究, Vol.26 No.1
	송현동 김경한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2011	宗教研究, Vol.65 No.-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자료2)를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

또한,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종교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타니 토미오(谷富夫; 1997년)의 「종교관광 도시의 공동규제」라는 논문이 처음으로 보인다.

저자명	논문명	년도	비고
谷 富夫 (Tani Tomio)	宗教観光都市の共同規制 : 宮島の人と社会(八木正教授退任記念号)	1997	人文研究 49(11)
	[市町村レポート] 宗教観光都市から宗教環境都市へ	10-13 2005	和歌山県伊都郡高野 町センタ-月報2005(6)
板井 正斉 (Itai Masanari)	聖地へのアクセシビリティ : 宗教観光地としての神社を事例に(現代 日本における地域活動と宗教文化の活 用-神道と福祉の接点-, パネル, <特集> 第六十七回学術大会紀要)	2009-03-30	宗教研究 82(4)
長谷 千代子 (Nagatani Chiyoko)	仏塔のある風景-雲南省徳宏州における 宗教観光 (特集 国家・開発・民族)	2011-03	中国21

*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GeNii)의 자료3)를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

그 외, 성지순례나 사찰관광 등의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190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성지순례 관련 논문은 모두 1,362건이 있었으며, 학위논문은 42건, 국내학술지 논문은 168건, 단행본 1,140건이 있었다. 김상원(1992년)의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 상품 선호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있으며, 국내학술지논문으로 이대준(1976년)의 「현장/여행기/세계 여행 및 성지 순례기」(활천, Vol.378 No.-), 권혁승(1989년)의 「성지 이스라엘과 성서 순례」(기독교와 교육, Vol.1 No.-)가 있다. 단행본으로서는 김재술(1977년)의 『聖地 巡禮記』(世宗文化社)가 있다.

2) <http://www.riss.kr/search/Search.do?> 에서 검색하여 자료 정리함.

3) <http://ge.nii.ac.jp/genii/SearchServlet> 에서 검색하여 자료 정리함.

위의 논문들은 주로 성지순례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으로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쓴 순례기가 아니면, 관광학의 관점에서 관광 상품화에 대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고는 종교와 관광을 따로 사고하는 관점이 아닌, 종교와 관광을 묶어서 융복합적인 종교관광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 차별성에 기연구들과 다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

2.1 종교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상·예술·과학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체계로서 기능하여왔다.

종교라는 말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어로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서양의 'religion'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relig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religio'로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의 '종교'는 불교·기독교·이슬람교·유교 등의 개별종교들을 총칭하는 유(類)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⁴⁾

종교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통합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애와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유대와 결속을 다지며, 사회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다.⁵⁾

이러한 종교의 기능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2009년 약 55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500만여 명의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도 불교·기독교·원불교·유교·무속신앙 등이 공존하는 다종교국가로서 종교관광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⁶⁾

4) 전효원(2011) 「사찰음식 관여도가 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웰빙지수와 종교를 조절변수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외식산업경영 전공 박사학위논문, p.47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내용을 재인용함.

5) 조승아·김태영(2011) 「종교관광이 관광객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 경남지역 주요 사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사)대한관광경영학회, p.405 ; (전성표, 2007)에서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함.

6) 박의서(2011)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관광연구저널』 25(5), p.121

2.2 순례

순례란 영적, 또는 절대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떠나는 의례행위를 말하는데,⁷⁾ 불교의 순례는 붓다 재세시(在世時) 우기(雨期)를 보낸 비구들이 붓다를 친견했던 관습에서 시작되었다.⁸⁾ 순례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붓다를 향함으로써 정각의 길에 이르는 예비단계로 여겨지며, 이 세상에 붓다의 자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불법(佛法)의 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내적 순례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요컨대 순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①존경하는 마음으로 붓다를 회상하는 것 ②공덕을 지어 더 나은 생을 영위하는 것이다.⁹⁾

종교적 신앙심의 발로로 세계적인 종교 성지나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종교적 인물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하는 성지순례는 종교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지순례나 참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교경관은 관광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양적,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성지순례는 민족종교나 보편종교, 어느 종교에서나 일반적인 신앙행위이며, 그 중에서 특히 이슬람교, 힌두교, 카톨릭, 일본의 신도(神道), 한국 불교에서의 삼사순례(三寺巡禮) 등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2.2.1 한국의 순례

삼국시대부터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의 관광이나 유람은 종교적·민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신라의 화랑도는 심신수양을 위한 명소를 순례하였으며, 시인묵객들은 풍류여행으로서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호연지기를 길렀었다. 한편, 불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효의 득도를 위한 당나라행’에서 볼 수 있듯이 구도나 유학을 위한 유람이 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찰 중심으로 연중 개최되는 각종 불교봉축행사 등의 참가 및 참배행렬이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만연했었다. 이는 서구식의 성지순례 여행과 가장 닮은 한국 종교관광의 시초라 할 만하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선종의 불교사상 전파와 연행의 도장과 불교탄압으로 사찰이 도시 중심의 불사에서 산지의 불사로 변천하였는데,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불교가 일시적인 쇠퇴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사찰지역만이 우수한 삼림자연경관을 훌륭히 보존하여 오늘 날에 와서 국민관광의 명소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¹⁰⁾

7) 송현동·김경환(2011)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종교연구』 제65집, 한국종교학회, p.207

8) 안양규(2000)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한국인문학연구소, p.116

9) 안양규(2000), 위의 논문, p.115

10) 정병웅(1997)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6-1 한국관광개발학회, p.131

현재, 한국 불교에서 성지순례는 각자 자신의 신앙의 형태, 기원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데, 삼사, 삼보사찰, 관음성지, 적멸보궁 등의 순례로 정착되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인도, 중국, 티벳, 동남아 등의 불교 성지순례가 조직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의 사찰순례가 공덕쌓기식이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순례는 새로운 신앙결사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08산사(山寺) 순례가 그것이다.

2.2.2 일본의 순례

일본에서의 종교적 순례의 전통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격지 참배로서의 순례가 시작된 것은 나라(奈良)시대였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현저화된 것은 헤이안(平安)시대이다.¹¹⁾ 당시 순례의 대상지가 되었던 곳은 주로 킨키(近畿)지방의 사찰들이었는데, 순례자의 중심은 귀족이나 상왕(上皇), 황족들이었으며, 사사참배와 온천치유(湯治)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에도시대에 들어와 농민층의 경제적 향상, 대도시 상인층의 출현, 치안 안정, 교통망과 교통수단의 충실화 등 여행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의 정비와 함께 이 시기에 순례가 대중화되는 데 기여한 요인들이 되었다. 따라서 에도시대 이후, 서민에 의한 종교적 순례의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¹²⁾

근세 일본에서 관광의 대중화는, 종교적 참배와 긴밀한 관련 하에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종교적 목적을 가진 이런 참배여행은 실제로는 관광이나 유희를 위한 여행으로서의 의미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일본에서의 대중관광의 출발로 간주된다. 특히 「산킨코다이제도(參勤交代制度)¹³⁾」의 확립으로 인한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정비는 장거리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해주었으며, 여행관련 서비스업의 발달,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성장 등도 여행을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봉건체제 하에서 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예외적으로 종교적 참배나 온천 치유를 위한 여행만이 허가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공식적인 명분은 종교적 참배, 실제 목적은 관광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참배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 권숙인(1997) 「근세 일본에서의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 ; 이세마이리(伊勢参り : 이세신궁참배)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6권 1호, p.130 ; (星野, 1986 ; p.234)에서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함.

12) 권숙인(1997), 앞의 논문, p.130

13) 막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다이묘(大名)를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해 제도화시킨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각 다이묘들이 격년으로 에도(江戸)에 거주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신사, 불사의 참배에는 하코네(箱根), 아리마(有馬), 아타미(熱海) 등의 유명 온천지에 들르는 것이나, 에도, 교토,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관광하고 유람하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에도시대의 신사와 불사 참배는 오늘날의 단체관광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에 있어서 대중관광의 발흥을 에도시대의 종교적 참배에서 찾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¹⁴⁾

따라서 일본관광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대상지로서의 명소(名所)는 주로 주요 신사(神社)나 불사(佛寺)와 같은 종교 시설이었으며, 그 곳을 찾아가는 행위, 즉 순례가 관광의 효시였으며, 관광의 기원은 성지순례에서 출발한다.

2.3 관광

관광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또는 학문적인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관광이란 생활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①사람이 일상생활권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떠나, ②원래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③영리목적이 아닌 위락목적으로 ④자고(sleeping), 먹고(eating), 마시는(drinking) 등의 소비행위를 하면서 ⑤타지방이나 타국의 문물, 제도, 인정, 풍경 등과 같은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기확대(self-magnification)행위 내지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문화현상의 총체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일본에서는 ①자유시간에 있어서의 일상생활권 밖으로의 이동을 동반한 생활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서 생기는 일련의 행동,¹⁶⁾ ②일반적으로 관광객이란 일시적으로 여가에 있는 인물로, 무엇인가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집에서 떨어진 장소를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¹⁷⁾ ③타향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조금 일시적인 즐거움으로서 매매하는 것¹⁸⁾ 등으로 관광을 정의하고 있다.¹⁹⁾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관광이 대중화된 것, 즉 일반 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광이 가능하

14) 권숙인(1997), 앞의 논문, pp.125-126

15) 趙誠榮(1991) 「宗教觀光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관광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p.13

16) 長谷政弘 編著(平成9年) 『觀光學辭典』, 同文館, p.1

17) 『Host and Guest. The Anthropology of Tourism』(1997)

18) 「관광인류학의 전략, 문화의 사고 파는 법」(1999), 『世界思想社』橋本和也, p.12

19) 다타이 나오코(駄田井 直子)(2011) 「宗教の觀光資源化に關する特徴と視點について」 『國際文化研究論集』第5號, 西南學院大學 大學院, p.238에서 재인용

게 된 것은 에도시대부터의 일이며, 이는 신사와 불사에 대한 참배와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의 건국신화의 본거지인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참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서민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세참배를 …’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각종의 코(講)나 단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참배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신사와 불사의 참배는 공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관광적” 요소를 다분히 가진 것으로 참배의 루트에는 종종 인근의 명소가 포함되어 있었다.²⁰⁾

2.4 순례와 관광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의 역사는 순례의 형태에서 관광으로 변화하였고, 대중관광현상은 그 자체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순례의 행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코헨)도 있다. 특히 인간의 신앙심은 성지 순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경배, 공양이나 성스러운 장소로 이동하게 만든다. 예컨대 교조가 태어나고, 생활하고, 수행했던 곳을 직접 순례하고, 초창기 신도들의 고난과 순교의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신앙심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 종교발상지로 가서 구법(求法)하려는 열정, 교리를 타지역이나 타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욕구, 종교의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 등은 순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²¹⁾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성지순례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신자들에게 신앙체험의 주요 기제장치로서 의의를 지녔으나, 현대에는 일반 대중들도 즐겨 찾는 관광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 행위의 ‘순례’와 여가,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성격을 가진 ‘관광’ 간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종교인들에게 성지는 순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강력한 종교적 구심점을 이루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성지는 단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현대사회는 이전의 전·근대사회와는 다르게 순례와 관광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례를 종교적 여행, 관광을 세속적인 휴가와 여행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속적인 여행과 종교적인 여행은 교집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다.²²⁾

종교의 관광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예부터 관광과 유사한 「순례(巡禮)」가 있다. 「순례(巡禮)」란, 대체로 종교적 의미를 구현화(具現化)하는 종교적 의례의 하나로, 의례적인 여행이며,

20) 권숙인(1997), 앞의 논문, p.125

21) 송현동·김경한(2011), 앞의 논문, p.194

22) 송현동·김경한(2011), 앞의 논문, p.188

거기에서는 참가자가 일상적인 자기의 모습과 상태에서부터 다른 곳으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것²³⁾이다.

그러나 순례와 관광을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는 학자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관광과 순례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은 없고, 관광은 순례의 하나의 형태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 ‘순례자가 관광객이라면, 관광객도 반은 순례자이다.(2)’, ‘가령 종교적 목적이 첫 번째라고 해도, 순례는 일반적으로 기념물, 박물관, 바닷가, 경관이 좋은 곳으로의 일반적인 관광을 행하고 있으며, 대개는 성스러운 여행과 속된 여행 사이에 하나의 선을 그을 수는 없다.(3)’라고 순례와 관광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는 주장²⁴⁾과 ‘순례와 관광의 차이 – 순례에는 고난이 동반하는 요소가 있다’ ‘순례는 성스러운 장소와 여유가 있는 영적인 사물과의 ‘교류’ 경험이며, 순례자 상호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참가자 상호의 관계의 변화·심화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²⁵⁾라고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5 종교관광

2.5.1 종교관광의 정의

종교관광은, 종교의 교육적 기능과 관광의 견문 확대 및 교양적 기능이 합목적적으로 적절히 결합된 양목적적인 관광²⁶⁾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관광은, 여러 가지 종교행위 중에서 특별히 여행을 통한 종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교적(신앙적) 동기에 의하여 ① 사람이 일상생활권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떠나, ② 원래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③ 영리목적이 아닌 위락 목적과 종교적 목적으로 ④ 자고(sleeping), 먹고(eating), 마시는(drinking) 등의 소비행위를 하면서, ⑤ 종교발상지나 성지를 직접 순례하거나 타지방이나 타국에 선교여행을 떠나거나, ⑥ 종교적 연수여행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적 목적과 위락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 또는 ⑦ 타지방이나 타국 사람들과의 접촉(contact)과 대화(communication)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23) 메르데이스·B·마크가이아(2008) 『宗教社会学-宗教と社会のダイナミックス』, 山中弘·伊藤雅之·岡本亮輔 譯, 明石書店, p.40 - 다타이 나오코(駄田井 直子)(2011), 앞의 논문, p.241에서 재인용
 24) 中谷哲弥(2004) 「宗教體驗と観光-聖地におけるまなざしの交錯」 『観光のまなざしの轉換越境する観光學』 遠藤英樹·堀野正人編, 春風社, p.183 - 다타이 나오코(駄田井 直子)(2011), 앞의 논문, p.242에서 재인용 - (1)(Burns ; 1999, p.97), (2)(Turner ; 1978, p.20), (3)(Fuiler ; 1992, p.205)
 25) 다타이 나오코(駄田井 直子)(2011), 앞의 논문, p.242 ; (하시모토[橋本] ; 1999, pp.72-84)에서 인용한 내용을 재인용함.
 26) 李允求(1988) 『현대관광학총론』探究堂, p.82

행위, 내지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현상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²⁷⁾

또한, 종교관광의 대상을 성지순례지, 종교적 의미와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함께 지니는 종교관광 매력물, 종교와 관련된 축제 등으로 보았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종교관광지를 사찰과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사찰 및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순교한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는 성지순례와 종교적으로 독특한 의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즉 연등제와 같은 종교적 이벤트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순교한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는 성지 및 유적지인 성지순례지, 종교 건축물, 종교 건축물, 종교 예술품, 역사적 유물 등을 포함하는 종교관광 매력물, 종교관련 축제 등을 종교관광지로, 이러한 종교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종교관광객으로 정의한다.²⁸⁾

2.5.2 종교관광의 성격

종교관광은 관광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로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관광형태이며, 고대에는 관광이 일부 상류층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순례 자체가 곧 관광이었기 때문에 관광과 순례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나 대중관광의 탄생과 더불어 여행이 곧 전형적인 순례의 형태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따른 회복의 기능으로서의 레저관광의 추구하고 쾌락의 추구로 변질됨에 따라 관광 본래의 성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세속적인 분위기로 변해가며 관광과 순례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순례와 관광을 신성함과 세속적인 두 가지 동기로 나누어 종교관광객의 여행 동기를 순례자와 관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로 보았다.²⁹⁾

종교 자체가 원래부터 관광성을 갖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성지순례나 참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교관광은 관광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관광의 기원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어렵다.

역사적으로 고대의 관광형태는 아주 단순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종교적인 형태 내지 지식추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순례의 일환이었다. 현대인의 관광은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패턴이나 유형을 보이고 있다. 현대 인간은 관광을 통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관광은 그만큼 다양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종교관광에 있어서 하나의 하위부분으로서 특정한 목적과 동기를 충족시키는 직능을 담당하

27) 趙誠樂(1991), 앞의 논문, pp.13-14

28) 조승아·김태영(2011), 앞의 논문, p.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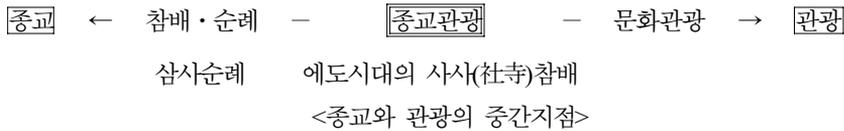
29) 조승아·김태영(2011), 앞의 논문, p.406

고 있을 뿐이다.

종교는 중요한 목적이나 동기를 구성하고 있어 현대의 관광에는 종교관광이 관광의 한 형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문화적 관광에 종교관광을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어 종교관광이 문화관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³⁰⁾

또, 종교관광은 순례와 관광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순례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종교관광 참여자들은 성(聖)과 속(俗)을 넘나들면서 성스러운 힘에 대한 경험과 문화체험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³¹⁾

이러한 종교관광의 성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5.3 종교관광의 효과

종교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서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여행으로 종교 매력물·성지·종교 이벤트 등의 다양한 종교체험이 종교관광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관광산업이 종교관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종교인구의 관광자 전환 잠재력 때문인데, 전 세계 종교관광자는 총 관광객 8.98억 명의 33.4%인 3억 명, 국내 종교관광자는 관광횟수 기준으로 총 관광객 7억 3백만 명 중, 9.3%인 6,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Kim, 2009)³²⁾

하지만, 종교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아일랜드의 신교와 구교의 분쟁, 舊유고슬라비아연방 내의 종교집단 간 갈등, 인도의 힌두교, 시크교 및 이슬람교 사이의 유혈분쟁 등은 종교가 인종적 차이, 문화집단적 경계 또는 계층적 이해와 맞물려 사회분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Rynhole, 2003) 이처럼 종교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관광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은 해당 종교가 제공하는 가치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종교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³³⁾

30) 정병웅(1997), 앞의 논문, p.122
 31) 송현동·김경한(2011), 앞의 논문, p.194
 32) 박의서(2011), 앞의 논문, p.121
 33) 조승아·김태영(2011), 앞의 논문, p.405 - 조·김의 연구에서 종교관광지 방문 전후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감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종교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태도가 긍정적으

개인적인 면에서 관광체험과 같은 여가체험이 주는 효과로서는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일탈감, 신기성, 긴장해소, 지적/신체적 역동감, 유능감, 성취감, 사회적 교류감, 자기 향상 등의 다양한 인지적 체험은 물론, 재미, 즐거움, 편안함, 몰입(flow), 기분전환 등의 정서적 체험도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 여가의 심리적 본질을 탐구해온 학자(고동우, 1986b)는 관광체험의 구성 개념에 대하여, ‘관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물리적·추상적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게 되며, 그때마다 심리적 반응으로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느낌 및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지각하는 것’을 관광체험이라고 정의하였다.³⁴⁾

따라서 오늘날 관광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치관의 다양화와 물질적인 풍요의 실현으로부터 정신적인 충족의 수단이 되고 있다.³⁵⁾

3. 불교와 종교관광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성도·초전법륜·열반 등과 관련된 네 곳의 유적지를 4대성지라고 한다.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는 불교의 발상지로서 붓다가 태어난 인도의 카필라바스투(Kapilāvastu) 룸비니(Lumbinī) 동산, 정각을 이룬 성도지 가야성(Buddagayā)의 보리수 아래, 초전법륜지 바라나시(Vārānāsī)의 녹야원(Mrgadāva), 열반지 쿠시나가라성(Kuśinagara)의 사라쌍수 숲 등 4대 성지가 있다. 4대 성지는 붓다의 생애 중, 주요한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4대 성지 순례와 불탑(佛塔) 숭배는 다분히 붓다 한 개인의 삶이나 인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붓다 사후,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⁶⁾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찰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논문들과 달리 필자는 「불교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찰관광이라 함은 사찰이라는 유형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는 부분이

로 변화하였으며, 행동적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어 타종교 관광지에 대한 지속적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와 방문시 타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있다면, 행동적 태도 역시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종교관광지 방문객의 긍정적 태도 변화는 종교관광이 종교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해석함.(조·김, p.406)

34) 정윤조(2009) 「템플스테이 체험의 여가심리학적 모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pp.9-10

35) 신도길·장병주(2004), 앞의 논문, p.471

36) 안양규(2000), 위의 논문, p.110

있어 필자는 불교의 사찰이나 유물과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찰이 있는 자연환경,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과 같은 무형적인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종교관광이기 때문에 「불교 관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불교관광」이라 함은, 관광자의 지식적인 욕구 해소와 종교적 욕구 해소, 관광적 욕구 해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단순한 사찰관광과 차별성이 있는 개념임을 밝힌다.

3.1 한국의 불교관광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이지만, 이의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성장해온 민족종교로는 유교, 원불교, 천도교, 대중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관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종교로는 불교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불교 사찰이 수려한 산악 및 계곡을 끼고 입지하여 있어서 불교경관을 배제한 관광지 이해가 쉽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과 관계가 깊다.³⁷⁾

한국의 문화유산 관련 통계수치는 다양한 편이지만, 불교유산의 비중이 크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국보와 보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총설』에 따르면, 국보는 231항목, 보물은 865항목, 사적은 231항목인데, 여기서는 불교문화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통계들에 의하더라도 불교문화재는 한국 국보의 53~70% 이상, 보물의 66%, 모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중, 불교건축 50%, 지정문화재의 34%, 시·도 지정문화재의 33%, 유형문화재의 90% 이상, 지정 유형문화재의 약 50%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불교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고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유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파전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지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의 불교유산이 세계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불교는 이러한 유구한 전통으로 말미암아 한국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분리할 수 없는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³⁸⁾

37) 불교 사찰로는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화엄사, 범주사, 상원사 등이 있으며, 천주교 및 기독교 성지는 불교사원에 비해 아직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서의 방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점차 교당의 확대와 부속건물의 증설, 종교 취락의 형성 등으로 종교관광지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지로는, 명동대성당, 솔피, 천진암, 절두산, 새남터, 미리내 등이 있다. 유교는 서원과 향교, 유교 관련 문화재들이 각 지역의 관광매력요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대중교의 성지인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동학을 기초로 생성된 천도교의 성지인 용담성지와 황토현, 원불교 성지인 영광의 영산성지 및 익산의 중앙총부 등이 있다.

38) 정효립(2010) 「사찰음식과 문화관광 ; 문화콘텐츠 가치의 제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지순례지, 종교 건축물, 종교 예술품, 역사적 유물 등을 종교관광 매력물이라고 한다면³⁹⁾, 이러한 관광지의 매력설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연적 환경과 함께 관광지의 역사성과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사찰은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로서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유명 사찰들을 방문하고 있다. 2000년대 문화·관광의 세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등 사찰의 관광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⁴⁰⁾

3.2 일본의 불교관광

한반도를 거쳐서 간 일본 불교의 신행자들도 물론 인도와 중국의 불교 성지를 향해 순례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순례 유형은 지향성에 따라 불보살 순례, 일본조사 순례, 기타 불교관련 순례, 민간신앙 순례 등의 4가지 유형⁴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또한 불교와 아주 관련이 깊다.

첫째, 불보살 순례는 여러 종파의 사찰에 안치된 다양한 불보살을 중심으로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음영장 순례문화로서 일본 성지순례의 특징 중 하나는 반수 이상이 관음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이나 불교설화집에 묘사되고 있음을 볼 때, 고대의 귀족중심의 순례가 민중에게 널리 전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둘째, 조사순례는 천태와 진언밀교와 관련된 조사와 카마쿠라 신불교의 조사를 중심으로 순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사와 규모면에서 시코쿠 88개소 영장(四國八十八ヶ所靈場)을 능가하는 순례는 없다고 할 정도이다.

셋째, 기타 불교관련 순례로서 부동존(不動尊)이라든가 달마대사, 비구니 사찰 등과 같은 특정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타의 신앙 및 행사 등과 관련된 순례의 범주이다.

넷째, 12지나 7복신 등과 같이 민간습속의 기복신앙에 바탕하여 특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신앙 순례로서 예를 들어,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하츠모데(初詣)나 연중의 신사참배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pp.35-36

39) 조승아·김태영(2011), 앞의 논문, p.407

40) 신도길·장병주(2004) 「전통 사찰음식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國際觀光學術大會』 한국관광산업학회, p.471

41) 白木利幸(2000) 『巡禮參拜用語辭典』小學館, pp.195-196, 원영상(2008)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宗教研究』 한국종교학회, pp.104-113에서 재인용

42) 원영상(2008), 앞의 논문, pp.104-108

말하며, 이러한 민간신앙은 다양한 부적과 점복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관할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숭배되고 있다. 사찰에서의 이러한 민간신앙의 흡수는 신불습합의 형태로 지역사원에서 활발하게 민중과 신앙적 교류를 하고 있다.⁴³⁾

불교의 민중정착과 더불어 형성된 성지는 고대에는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한 남도불교(南都佛敎)의 중심 사찰과 천태종과 진언종과 관련된 불교성지로서 확립되어간다. 중세 이후에는 진언종의 조사(祖師) 쿠카이(空海, 774~835)와 관련된 영장(靈場)인 시코쿠(四國) 88개소 편로(遍路)가 정착되고, 전국(戰國)시대에는 관음 33소(觀音三十三箇所) 순례, 그리고 에도(江戸, 1603~1867)시대부터는 에도막부의 불교 단가제(檀家制) 확립과 사회경제적인 안정이 바탕이 되어 각지의 영장신앙과 순례문화가 정착되고 활발히 전개되어간다.⁴⁴⁾

4. 한·일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

4.1 한국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

인터넷의 보급률이 특히 높은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IT산업 발전의 영향과 88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눈에 띄게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참선(參禪)⁴⁵⁾ 수행, 명상(冥想)⁴⁶⁾ 체험, 웰빙⁴⁷⁾ 식품은 물론이고, 웰빙 건강클럽, 웰빙 컴퓨터, 경영학에서는 웰빙과 마케팅 전략까지 나올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다.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는 이미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우리 의식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데,

43) 원영상(2008), 앞의 논문, pp.104-113

44) 원영상(2008), 앞의 논문, p.96

45) 참선(參禪)은 화두를 일념으로 참구하는 것으로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중국에 불교를 전한 달마 조사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염불기도, 간경, 보살행 등의 다른 수행법보다 힘들지만 더 빠르고 깊이가 들어가며 지혜와 직관력이 도발된다 하여 수행법의 으뜸으로 친다. 앉아서 하는 좌선이 일반적이고, 동정일여, 오매일여에 들어감을 중시한다. 화두 의정에 몰입하는 점에서 명상과 다르고, 자세와 호흡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건강 위주의 호흡 수련과 구별된다.

46) 집중·사색·추상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예배나 정신훈련.

47)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안녕·행복'을 뜻하며, 우리말로는 '참살'이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물질적인 풍요에 치우치는 첨단화된 산업 사회에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주의에서 연관성을 찾기도 하고, 환경친화적·생태학적·에너지 효율적 제품을 선호하는 로하스(Life of Health & Sustainability/LOHAS)족을 언급하기도 한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웰빙의 의미는 도교의 양생개념과 유사하며, 유교적 입장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중용(中庸)으로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탐욕과 집착이 해소되어 육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질살기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유래된 개념이다. 웰빙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더라도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건강’이다.⁴⁸⁾ 최근에는 힐링(healing) 개념의 확산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힐링 캠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힐링팜스, 힐링코드, 힐링크림, 힐링센터, 힐링하우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단전호흡, 요가, 국선도, 명상음악, 각종 「치유(治癒)센터」나 「치유연구원」 등의, 일본의 「癒し」와 버금가는 것들이 출현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처럼 「癒し」라고 한 마디로 압축된 단어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癒し」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부하는 스님들의 수양의 도량이었던 사찰들이 생활 속의 불교로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참선을 하고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라는 문구로 각 사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불교교양대학은 물론이고, 템플스테이, 선무도 체험, 습지생태 체험, 참선 수행, 발우공양, 자연생태 체험, 휴식형 산사 체험, 녹차 만들기, 선남선녀 미팅 프로그램, 메주 만들기, 천연염색 등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산사에 갇히지 않고 대중 속으로 다가가기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템플스테이사업은,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에는 7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2007년에는 73개 사찰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4년 출범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노력을 활발히 하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사찰순례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도 착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를 만드는 출발점으로서 불교의 세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08년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을 개최하여 한일 불교 및 민간차원의 교류와 한국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⁹⁾

48) 전효원(2011), 앞의 논문, pp.39-40

49) 이재수(2011) 「한국 정토신앙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정토학연구』 제15집, pp.227-228

최근에는 종교와 문화와 체험, 그리고 순례의 성격을 담은 융복합적 종교문화체험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다양한 종교들의 종교별 순례길을 개발하여 종교체험과 문화역사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 종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아름다운 순례길, 내포화 숲길’에서 찾을 수 있다. 체험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는 템플스테이를 들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승려들의 수행공간이자 신도들의 수행공간으로 국한되었던 사찰이라는 공간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체험 등 여가활동의 장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명상관광(meditation tourism)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금융위기 등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자기 수양 목적으로 명상관광을 즐기고 있다.⁵⁰⁾

또,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교를 초월한 타종교인들도 불교의 음식과 식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배우러 다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사찰음식 전문점 역시 늘고 있는 추세로 사찰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중에는 타종교인의 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⁵¹⁾

4.2 일본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

일본관광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대상지로서의 ‘명소(名所)’는 주로 주요 신사(神社)나 불사(佛寺)와 같은 종교 시설이었으며, 그곳을 찾아가는 행위 즉 순례가 관광의 효시였다는 점은 내외부자가 막론하고 공인하는 바일 것이다. 한편, 교토, 에도, 도쿄와 같은 대도회지도 관광대상지였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갖춘 산악, 해안, 폭포, 하천, 온천지 등도 중요한 관광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명소’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인데, ‘만들어지는 명소’가 보편화되고 그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람회, 테마파크형 관광명소, 일본 사회의 복고분위기와 결부된 역사적 유적지나 전통적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후루사토 관광 등이 ‘만들어지는 명소’에 속한다.⁵²⁾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에 의해 관광 대상지의 다양화는 물론,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나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 등도 성행하고 있다.⁵³⁾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 사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癒しのお寺, 엔만인(円満院)」⁵⁴⁾의 홈페이지에

50) 송현동·김경환(2011), 앞의 논문, pp.200-202

51) 전효원(2011), 앞의 논문, p.48

52) 김양주(1997) 「일본 관광명소와 자원의 변천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만들어지는 명소」 『지역연구』6권 1호, pp.143-144

53) 김양주(1997), 위의 논문, p.153

서 따온 내용이다.

긴 불황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 우울·과로사의 증가, 무기력함 등의 경향이 이어져 일본사회 전체가 아직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또 얼핏 만족한 듯이 보이는 여성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결여감을 느끼고, 노력은 하여도 그만큼의 달성감·만족감은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중략…)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건강 유지·향상]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테마의 하나이며, 오늘날만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중략…) 그러한 중에 엔만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癒し」를 주기 위하여, 멘탈 헬스 케어를 행하는 환경으로서 엔만인 본산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는 癒しの 사찰」이라는 문구로 「癒し」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癒しの 중요함」, 「왜 현대인에게 癒しが 필요한가?」 등의 강좌와 「癒し프로그램」, 「癒しの 장(場)」을 개방하여 참가자의 사정에 맞추어 1박 2일, 2박 3일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여행사의 관광 상품으로서 이름 있는 여행사는 거의 있을 정도로 「癒し여행」이라는 광고가 있다. 그것은 주로 「癒し사찰 순례」등으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찰 체험을 하는 것들인데, 내용은 불상 관람, 본당 참배, 정원 관람, 사찰 식사 등 사찰이 아니면 맞볼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癒し⁵⁵⁾」란, 「癒す」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고통이나 슬픔, 피로를 안온한 것, 또한 널리 감정을 온화하게 누그러뜨리는 것, 심신 모두 안락한 상태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의 일본국어사전에 「癒し」라는 단어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癒し」는 본래, 종교학이나 종교인류학에서 「미개사회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술의(呪術医)가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악마를 떨쳐내는 행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었다.⁵⁶⁾ 즉, 「癒し」란,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지역사회나 공동체로부터 고립하여버린 사람을 다시 동료로서 맞이하기 위하여, 음악이나 극, 춤을 섞어서 영적인 네트워크의

54) 시가현(滋賀県) 오오츠시(大津市)에 있는 천태종계 단립종교법인(天台系単立宗教法人)의 절. 본래 온조지(園城寺)의 본사(本坊)로 미츠이 삼몬제키(三井三門跡)의 하나. 칸와(寛和) 3년(987) 교토 오카자키(京都岡崎)에 고엔호신노(悟円法親王)가 창건, 보도인(平等院)이라고 칭하였다. 에도(江戸) 초기에 현재의 곳으로 이전.

55) 영어로는 healing ; 히어링 ; 마음을 위안하는 일, 마음의 치료.

56) 우에다 노리유키(上田紀行)의 『각성(覚醒)의 네트워크』(카타츠무리社/1990년)에서는 「세이론의 악마 씻김에 대한 언급 중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최근과 같은 사용법을 한 최초」라고 적고 있다.

연결을 재구축하는 것이 「癒し」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경향 등, 과도한 긴장이나 만성적인 심적 피로를 축적시키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행위,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아이템 등도 합해서 「癒し·癒し물품」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중심으로 「癒し」의 특징이나 특성을 가진 인물·물체 등을 「癒し系」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癒し系」란,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단어로, 본래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여성 탤런트에게서 「온화·癒し·평안」을 느끼게 하는 인물 및 그 거동을 가리킨다. 예능계에서는 「혼와카⁵⁷⁾」「안와리⁵⁸⁾」라고 하는, 시청자를 온화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탤런트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그맨이나 남성 정치가, 학자에게도 「癒し系」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존재한다. 게다가 과격한 표현이 아닌, 환상(fantasy)과 향수(nostalgia)가 테마인 텔레비전 게임도 「癒し系」로 장르가 나뉘어져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삼림욕(森林浴), 음악요법, 미술품 관람, 히프노세라피⁵⁹⁾, 마사지, 발마사지, 향수(아로마), 기공(氣功), 체조, 요가, 이용실 등의 여러 가지 공간에서 「癒し」효과가 나타나며, 요즘은 「癒しの旅」라고 하여 각종 여행사의 광고들로 인터넷이 가득 차기도 한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의 특징과 필자의 논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1. 종교관광에 대한 선행연구는 순례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점차 관광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
2. 한국과 일본 종교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3. 한국과 일본의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점차 관광적인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

57) ほんわか ; 따뜻하고 평온한 기분
 58) やんわり ; 부드럽게, 살며시, 온화하게, 점잖게
 59) hypnotherapy ; 催眠療法, 前世療法

4. 관광의 객체를 관광의 주체가 찾아가던 시대에서 관광의 매체가 주최자가 되어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지식적 욕구, 종교적 욕구, 관광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변화
5. 종교관광의 최근 동향은 인간 자체의 정신적·육체적 치유가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 등, 종교단체나 종교기관의 동참을 통한 사회참여
6. 한·일 종교관광의 전망과 특징,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교통기관의 발달, 대량수송 조건의 정비, 가처분소득의 증가, 여가의 증대, 마스크의 발달에 의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제반 여건의 성숙에 의하여 이른바 대중관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종교관광의 개념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의 종교관광은 성지를 참배하고 순례한다는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종교가 사회교육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적 심리작용을 중요시하여, 그것을 조절하고 「癒シ(治癒)」되는 효과로서의 관광의 매력을 이용하는 종교관광의 형태로 변화 내지는 발전되어가고 있다.

관광이라는 효과 행위가 존재하기 위하여, 관광에 있어서 3요소인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구성이 요구되는데, 당연히 관광객이 관광의 주체가 된다. 또,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대상이나 유·무형의 자원인 관광의 객체로서 교조의 성적지나 각 종교의 성지와 같은 유형적인 것과 종교적 업적이나 기반과 같은 무형적인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관광객과 관광객체를 연결시켜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간적인 업체로서의 여행업과 같은 알선기관이 관광의 매체가 된다.⁶⁰⁾

이 관광의 3요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호관계에도 변화를 맞이하여,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 관광의 객체인 성지나 사찰 등을 찾아가던 시대였던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다. 현대에는, 지금까지의 관광의 매체였던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의 여행알선기관이나 교통기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의 객체인 사찰이나 종교단체가 관광의 주최자가 되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시대가 된 것이다.

템플스테이(temple stay), 처치스테이(church stay)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명상관광(meditation tourism), 자연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서 이겨내기 위한 현대인의 웰빙(well-being)에 중점을 둔 푸드투어리즘(food tourism) 등, 최근에는 종교와 문화와 체험, 순례의 성격을 담은 융복합적 종교문화체험 관광상

60) 趙誠樂(1991), 앞의 논문, pp.30-31

품이 개발되고 있다.

【參考文獻】

강유미(2010) 「레저와 영적 웰빙의 관계 ; 레저의 영적 잠재력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대학원 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숙인(1997) 「근세 일본에서의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 ; 이세마이리(伊勢参り) : 이세신궁 참배를 중심으로」『지역연구』6권 1호

김기홍(2009) 「템플스테이를 모형으로 하는 종단 수련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대진대학교 대학원 대진종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병문(1986) 「종교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상무(1990) 「관광공급 측면에서의 사찰 관광지 실태 비교 분석」『경영경제』제23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김양주(1997) 「일본 관광명소와 자원의 변천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만들어지는 名所」『지역연구』6권 1호

도경록(2000) 「宗教觀光參與者の 満足 : 佛敎史刹訪問者の 満足에 미치는 期待·成果·不一致의 影響을 中心으로」漢陽大學校 大學院 관광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의서(2011)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관광연구저널』25(5)

송현동·김경한(2011)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종교연구』제65집, 한국종교학회

신도길·장병주(2004) 「전통 사찰음식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國際觀光學術大會』한국관광산업학회

신중성·김선희(1998) 「사진을 이용한 종교경관의 관광지리적 이해」『사진지리』제7호

안양규(2000)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종교문화연구』한국인문학연구소

원영상(2008)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宗教研究』, 한국종교학회

이남희(2007) 「e-문화관광정보의 현 단계와 전망」『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36집

이재수(2011) 「한국 정토신앙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정토학연구』제15집

李元求(1988) 『현대관광학총론』探究堂

장병주(2011) 「한국 전통사찰음식의 대중화와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동북아관광연구』제7권 제2호, 동북아관광학회

전효원(2011) 「사찰음식 관여도가 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웰빙지수와 종교를 조절변수로」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외식산업경영 전공 박사학위논문

정병웅(1997)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관광개발논총』6-1, 한국관광개발학회

정윤조(2009) 「템플스테이 체험의 여가심리학적 모형」동국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정효림(2010) 「사찰음식과 문화관광 ; 문화콘텐츠 가치의 제고방안 연구」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趙誠樂(1991) 「宗教觀光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研究」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관광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승아·김태영(2011) 「종교관광이 관광객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 경남지역 주요 사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관광연구』제26권 제1호, (사)대한관광경영학회

新屋 重彦·島薮 進·田邊 信太郎·弓山 達也(1995) 『癒しと和解』成蹊大学 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板井 正齋(2008) 「聖地へのアクセシビリティ ; 宗教觀光地としての神社を事例に」日本宗教学会67回学術大会

立川 昭二(1991) 『病いと人間の文化史』新潮選書

駄田井 直子(2011) 「宗教の観光資源化に関する特徴と視點について」『國際文化研究論集』第5號, 西南學院大學 大學院

波平 惠美子(1987) 『病氣と治療の文化人類学』海鳴社

松井 圭介(2007) 「観光戰略としての宗教」『宗教研究』Vol.80 No.4

<http://www.ggzen.or.kr/>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

www.allabout.co.jp/travel/healingtrip

<http://www.iyashinotera.jp/>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요旨>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

—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풍요한 사회 속에서 허탈감을 느낀 현대인은 관광이라는 형태에서 위안을 받게 된다. 성지순례나 참배와 같은 종교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순례로, 순례는 대중화되면서 관광의 형태로, 이것이 종교관광으로 정착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의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종교관광이 성립하여 발전한다.

관광지의 매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연적 환경과 함께 관광지의 역사성과 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사찰은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로서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관광은 종교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은 해당 종교가 제공하는 가치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종교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교관광은 개인적으로는 일탈감, 신기성, 긴장해소, 지적/신체적 역동감, 유능감, 성취감, 사회적 교류감, 자기 향상 등의 다양한 인지적 체험은 물론, 재미, 즐거움, 편안함, 몰입(flow), 기분전환 등의 정서적 체험도 유발한다.

따라서, 오늘날 관광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치관의 다양화와 물질적인 풍요의 실현으로부터 정신적인 충족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웰빙(well-being), 치유(治癒; 癒し), 힐링(healing) 등을 추구하면서 종교와 문화와 체험, 그리고 순례의 성격을 담은 융복합적 종교문화체험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A Development and A Latest Tendency of Religious Tourism in Korea and Japan

Developing industrial society, modern men who felt a terrible letdown in affluent society are seeking for tour.

It is active like a pilgrimage and worship, these religious activities settle down to the tour, and it makes a religious tourism. I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beautiful and natural landscape, religious tourism is established and developed.

Religious tour has a greater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by sharing their value and culture. And it means they are became the foundation of social intergration and help avoid other problems between each religions tourism.

Therefore, recently, there is developed the tour package of religions and culture experience, as well-being and healing.